

리좀과 하이퍼텍스트 관점에서 본 도서관 공간구조의 이해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Spatial Structure in Libraries with Special Reference to Rhizome and Hypertext

최윤경* / Choi, Yoon-Kyung

김민중** / Kim, Min-Jung

Abstract

The spatial property of contemporary library is now rapidly changing through the spatial expans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reduction of information storing facility, the variation of approaching methods by digital shift and the transition of social recognition as a cultural facility. Also the spatial characteristics with referring characters have developed such as, decentralization, de-construction, de-boundary, individual space, erasing of boundary, flow of space which extends infinitely. The main process of library origination, the systematic classification, and the storage system concluding with the demand and value of the information by changing social demands and the role of the widest ranged facility. And 5 themes, such as, hierarchy, center, storage, boundary, and symbol, as a changed spatial concept and analyzed in the case of library plans and libraries which are actually built. The significant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at rhizomatous intellectuality and hypertext could be a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could be a viewpoint of the transition of spatial structure in libraries. A future library should have spatial property embracing various social changes and needs and for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and analyze through the architectural explication from diverging points of view.

키워드 : 도서관, 공간구조, 리좀, 하이퍼텍스트

Keywords : Library, Spatial structure, Rhizome, Hypertext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의의

대표적인 사회정보시설인 도서관은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는 사회시설이며, 개인의 의식에 환원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인류의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소통시키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서관은 지식의 전달이라는 목적을 위해 지식의 분류, 대여, 통제라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시대에 따라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사회적 담론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이 조금씩 변모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도서관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는 14세기 후반 대학의 출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일반 대중을 위한 도서관이 생겨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의 도서관의 형태는 장서를 분류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권력에 의한 지식의 분배를 효율

적으로 하기 위하여 공간적 접근성 제어를 통한 통제방식을 가지고 있었다.¹⁾ 그러나 현대의 도서관은 지식과 정보의 공간적 확대와 디지털화에 의한 정보 저장시설의 축소와 접근방법의 변화, 공동체 문화시설로의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의해 그 공간적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정보 형태의 변화 등이 가져온 도서관의 공간 변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났는지 살펴보는 것에 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도서관 공간변화의 이론적 배경을 찾는 데 있어서 리좀²⁾적 사유와 하이퍼텍스트³⁾가 상당부분 가치 있는 개념적 근거가 될 수 있을

1)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사, 서울, 2003, pp.126~127

2) 리좀적 사유는 중심이 제거된 n-1의 사유, 즉 비-체계가 아니라 비중심화된 체계이다. 중심에 귀속되는 상위의 이웃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웃과 만나고 접속하는 체계이다. 모든 것을 근거나 원인을 찾아 그것을 근거삼아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초월적 사유가 아니라 연기적(緣起的)인 관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어떤 것이 무엇과 관계하는가에 따라 본질이 달라진다는 상호간의 내재적 관계를 따르는 사유로서 들뢰즈와 가타리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3) 하이퍼텍스트는 '마디들의 집합이며, 그 마디들 속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이음'에 의해 연결된다. 각각의 마디들은 하나의 단어나 하나의

* 정회원,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건축학박사

** 정회원,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중앙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을 밝히는 것에 있다. 어느 시대건 그 시대의 이슈가 되는 논의나 담론은 그 시대의 다양한 현상과 사회적 특징을 대상으로 한다. 해석의 관점을 리즘과 하이퍼텍스트로 한정된 것은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사유가 리즘이고, 또한 리즘을 공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는 하이퍼텍스트라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수많은 현대사회의 특징들이 이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도서관 공간구조의 변화를 바라본다는 점에 있어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1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근대이후를 중심으로 사회변화에 따른 변화된 도서관의 공간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먼저 전체적 합리성을 추구하였던 구조주의에서부터 최근의 Fold건축, 유동적 비선형 건축 등의 개념을 살펴보고, 최근의 건축적 개념에 리즘과 하이퍼텍스트 사유가 자리하고 있음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요구와 정보형태의 변화 등에 따른 도서관 공간 변화의 특성을 리즘과 하이퍼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사회문화적 의미를 다루는데 있어서는 시대적 상황이 요구하는 요구적 측면과 정보 혹은 지식의 가치 변화에 따른 가치적 측면을 살피게 될 것이다. 변화된 공간의 개념은 리즘과 하이퍼텍스트 사유를 고찰한 결과 나타나는 상대적인 공간개념을 바탕으로 위계, 중심, 저장, 경계, 상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변화된 공간 개념이 가지는 사회문화적 의의와 도서관이 가지는 공간적 성격이 무엇인지를 살필 것이다.

2. 변화하는 공간개념

2.1. 전체성의 한계

(1) 전체적 합리성 - 구조주의

건축에서 공간은 전체를 이루는 요소들의 관계에 따라서 그

조각만큼 작을 수도 있고, 하나의 책이나 다른 완성된 작품만큼 클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마디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하이퍼텍스트는 끝과 경계가 없으며 어디서든 시작이 가능하다. 여기에는 어떤 정해진 중심도 없고 따라서 가장자리도 없다. 이것은 컴퓨터 환경에서, 특히 웹 환경에서 하나의 출발점에서 마우스 클릭 하나로, 누가 쓴 것이든 또 어디에 있든, 바로 다른 정보 원천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하이퍼텍스트는 베니바르 부시(Vannevar Bush)가 1945년 7월에 Atlantic Monthly에 실은 "As we may think"라는 논문을 기원으로 한다. 그 글 속에서 memex, 즉 Memory Extender(기억확장기)라고 한 것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하이퍼텍스트는 테오도르 넬슨(Theodor Holm Nelson)에 의해 1965년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졌다. "하이퍼텍스트란 비순차적인 글쓰기를 말한다. 가지를 치고 독자들에게 선택을 허용하는 텍스트. 상호 작용적 화면에서 가장 잘 읽히는 것. 쉽게 말해서 끈들에 의해 연결된 일련의 텍스트의 덩어리 글로서 독자에게 다른 경로를 제공하는 것."

성격을 달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전체적 합리성을 추구하였던 구조주의는 구조를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의 관계성에 주목하고 이러한 관계들의 체계를 구조라고 하였다. 이러한 구조주의의 건축적 요소로는 성장, 변화, 융통성, 상호변화가능성, 집단적 형태, 군집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주의 건축을 선도하였던 집단들은 다원화된 현실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보다 유동적 상황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그들은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체를 전체적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것과 건축적 문제를 결정하는 사회적 요소와 이의 해결 즉, 사회구조와 건축구조 사이에 관계하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였다.

(2) 전체적 합리성의 극복

구조주의의 복잡성에 대한 사유는 근대정신의 붕괴 이후 1960년대의 복잡하고 다양해진 현상들을 파악하는 것이었다. 사회체계의 복잡성을 포용하기 위해 전체성이라는 내재적인 종합성을 추구하였으나 이는 공식이나 틀에 맞추고 객관적, 보편적으로 규격화하는 전체주의적 독선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단련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은 구조주의의 한계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전체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탈구조주의이다. 탈구조주의는 구조주의의 합리적 사고를 부정하고 극단적이고 반구조적인 것을 추구하였다. 대표적으로 리오타르의 포스트모더니즘, 보드리야르의 사회학, 데리다의 해체주의가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⁴⁾ 이들은 전체성을 가지는 구조주의의 전체주의를 파편화시켜 개체를 중요시하였다. 한편 해체주의는 이중의 대립구조의 해체와 구조주의가 가지고 있던 전체성에 대해 거부를 추구하였다. 이들 탈구조주의와 해체주의는 복합적인 상황에 대한 해결을 위해 구조의 전체성을 부정하고 형태요소나 프로그램을 파편화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개념은 사물의 형태적인 유희로 치우치는 한계를 나타내면서 극복의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이후에 등장한 후기구조주의는 역동적인 사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구조주의의 한계를 역동성에서 찾으려고 하였다. 시간, 불연속, 카오스, 욕망, 권력, 신체 같은 개념들을 이끌어냈으며, 결과적인 생성물보다는 의미의 생성과정을 중요시하였다. 이는 들뢰즈의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사고와 그 의미를 같이 한다.

1992년에 일본의 유후인에서 세계건축가들의 'Any'회의가 열렸다. 공간의 논리라는 주제로 열린 이 회의에서 새로운 건축 이론의 대안으로 제프리 킵니스(Jeffrey Kipnis)가 들뢰즈의 철학과 르네 톰의 카타스트로피(Catastrophy, 급변)이론을 적용한 Fold⁵⁾ 건축을 소개하였다. 들뢰즈는 1988년 주름이라는 책을

4) 최지운, 후기구조주의 사유와 '해체주의 이후' 변화된 구조-개체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2, p.20

통해 17세기 철학자 라이프니츠의 사상을 소개하였다. 그는 라이프니츠의 '모든 운동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세계는 무한히 접힌 주름이다.'라는 세계관을 시공간개념으로 해석하였다. Fold의 의미를 건축적으로 전환시켜 보면, 건축에서 이제까지 제외되었던 부분들을 건축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해주며, 새로운 건축적 맥락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들뢰즈의 주름사유에 근거한 Fold 건축의 공간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⁶⁾

<표 1> 주름 건축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들뢰즈 사유와 공간적 특성

공간적 특성	다양한 특이점들의 중첩	무한한 중층 구조	연속성, 일체화를 기반으로 하는 질적 차이
들뢰즈 사유	복잡성	일관성	비동질성(다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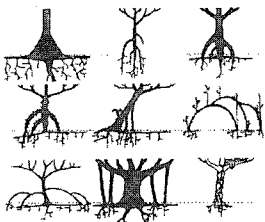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건축가들이 현대 건축 공간을 찾자 도시적 맥락과 함께 건축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또한 1996년 바르셀로나 UIA회의에서 현대도시에 대한 5가지 개념 중 하나로서 '흐름'이 제시되었다. "Present and Future. Architecture in Cities"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건축과 현대도시 간의 새로운 관계에 주목하여 들뢰즈와 가타리가 제시하였던 천개의 고원에 대응하는 5가지의 주요 기준이 제시되었다. 그 중 주목할 것은 흐름에 대한 사유이다. 흐름의 사유는 역동적이고 유동적인 방식, 즉 결정론을 벗어난 예측 불허의 창조적 비선형의 논리를 추구한다.

이러한 최근의 건축은 비선형적인 성격을 지니며, 흐름과 무단한 생성의 특징 및 상대적 공간을 형성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리즘과 하이퍼텍스트에서 그 배경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2. 상호작용을 통한 상대적 공간

(1) 지속적 다원성 - 리즘 Rhizome

"리즘이란 말 그대로 근경, 즉 뿌리 없는 식물과 같은 것이다."⁷⁾ 질 들뢰즈는 그의 책 천개의 고원 서문에서 서구의 사상적 전통을 수목형 모델로 규정하면서 근경적 사고방식인 리즘적 사고를 제안하고 있다. 리즘적 사고는 중심이 없이 여러 방향으로 열린 체계, 그 자체로 유의미한 다양한 집결지를 가질 수 있



<그림 1> 리즘구조

5) Fold란 접다, 끼다, 싸다, 덮다, 주름 등의 뜻을 가진다.

6) 강훈, 디지털 건축디자인으로서 '주름(Fold)'에 관한 연구 - 질 들뢰즈의 '주름(fold)'사유와 피터 아이젠만의 '접기(folding)'기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11호, 2004

7) Deleuze Gilles & Guattari Felix, 천개의 고원, 1판, 새물결, 서울, 2001, p.18

는 체계, 접속되는 항들이 늘거나 줄어들에 따라 성질이 달라지는 가변적 체계, 각각의 부분들이 중심으로 귀속되는 상위의 이웃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이웃과 만나고 접속하는 체계 등을 가진다.

리즘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건축적·공간적 의미와 결합시켜 보면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무한한 생성 - 리즘이 가지는 4가지 원리⁸⁾ 중 연결과 이질성의 원리, 다양체의 원리는 무한히 생성되어 끊임없이 진화하는 공간적 성격을 형성한다. 리즘적 특성은 비위계성을 가짐과 동시에 수평적인 복수성을 가진다. 이 복수성은 다양한 차이에 의해 다양한 공간을 펼쳐나가고 다양한 공간의 통합을 통한 공간의 모호성을 띤다. 시물라크르⁹⁾ 사유의 커다란 특성 중 하나는 생성이다. 이 생성은 질서에 탈중심화, 차이, 카오스를 야기한다. 시물라크르는 리즘의 사유에서 구체화 되며, 다양한 공간의 통합을 통해 모호한 공간, 경계흐리기, 다원적 성격 등의 공간적 특징을 갖는다.

네트워크적 공간 - 리즘적 사유는 많은 점에서 디지털 문화의 성격과 닮아있다. 디지털 문화를 선도한 것은 인터넷의 등장이었다. 인터넷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구별 없이,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개방형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실의 세계와 같은 물리적인 구조도, 중심도, 국경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탈근대의 가상공간이 형성되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리즘 또한 이질적인 다중적 코드화 된 관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으며 이는 네트워크상의 가상공간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 네트워크 가상공간의 특징과 리즘이 가지는 공간적 성격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정리 될 수 있다.¹⁰⁾

<표 2> 리즘과 네트워크 가상공간의 공간적 성격

리즘적 사유의 특성	네트워크 가상공간의 특성	공간적 성격
중심이 제거된 비위계적 공간	비중심적 그물형 네트워크	탈중심화된 공간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가는 구심점 없는 파생	개방형 시스템	탈구조화된 공간
각각의 뿌리가 다양한 집결지를 가지는 접속 체계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탈구조화된 공간
수평적 복수성을 지닌 경계 흐리기	분자적 상태인 수많은 노드	탈물질적 공간 (탈경계의 공간)
복제된 이전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독립된 개체	고유한 주소체계에 따른 비트의 단위화	개별화된 공간

경계를 부정하는 공간의 확장 - 무한히 뻗어나가는 리즘적

8) 리즘의 4가지 원리는 다음과 같다. 연결과 이질성의 원리, 다양체의 원리, 의미작용 없는 단절의 원리, 지도제작과 전사의 원리

9) 시물라크르 - 순간적으로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우주의 모든 사건 또는 자기 동일성이 없는 복제를 가리키는 철학 개념, 두산세계대백과사전

10)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워크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1999, pp.136~143

구조의 특성에 따라 공간은 경계를 부정하는 모호함을 나타낸다. 리즘의 사유는 들뢰즈에 의해 경계의 확장 및 다원적 사고 등으로 확장되며, 이러한 사고는 탈주-유목적 사고¹¹⁾의 개념을 형성한다. 유동적 움직임은 경계를 흐리고 탈구조적인 성격을 가진다. 리즘은 유동적 흐름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의 사고와 가치체계를 대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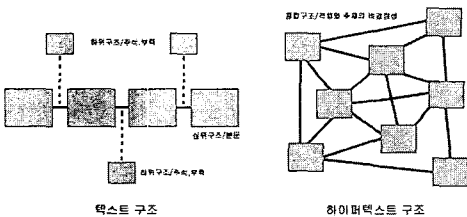


<그림 2> 도요 이토의 샌다이 미디어테크

다양체적 구성 - 리즘이 가지는 다양체, 다양성은 어떤 하나의 척도, 원리로 환원되지 않는 이질적인 것의 집합을 뜻한다. 이는 하나가 추가 되는 것이 전체의 의미를 크게 만드는 다양성이다. 리즘의 다양체적 구성은 공간의 무한한 지평과 틀을 구성하는 것이며, 다양성, 대립과 모순성, 복합성 등의 특징은 미결정적인 다층적 구조를 만들어낸다.

(2) 하이퍼텍스트의 상호작용

하이퍼텍스트는 '마디(node)들'의 집합이며, 그 마디들 속에 산발적으로 퍼져있는 '끈(link)'에 의해 연결되는 구조이다. 하이퍼텍스트는 한계, 위계 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이퍼텍스트 내의 정보들은 상호간에 간섭하고 간섭되어진다.



<그림 3> 텍스트 구조와 하이퍼텍스트 구조

하이퍼텍스트가 가지는 공간적 구조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정보의 상호관계성 - 하이퍼텍스트의 구조는 이동 경로에 따라 무수히 많은 줄기를 생성한다. 이는 각각의 정보가 독자적 주체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정보의 상호관계성으로 본 하이퍼텍스트는 상호보완적인 구조, 한계와 위계가 존재하지 않음,

각각의 마디가 주체가 될 수도 있고 객체가 될 수도 있음, 정보 상호간의 교류에 의한 새로운 정보와 지식의 생성 등으로 특징 지워질 수 있다.

정보의 비선형적 흐름 - 네트워크는 텍스트가 흐르도록 만든 선을 의미한다. 하이퍼텍스트의 네트워크에서는 이러한 흐름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용자 자신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하이퍼텍스트 내에서는 각각의 정보가 자리하는 공간이 이용자 중심의 공간, 비선형적 흐름의 공간, 개별적 공간을 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하이퍼텍스트의 공간을 접근과 경계의 시각에서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 하이퍼텍스트의 공간구조

하이퍼텍스트	공간구조
맥락의 제거 - 중심의 해체	중심이 되는 공간의 부재
비선형적 텍스트 - 경계의 해체(경계 없음)	다양한 중심들로 인한 경계 확장
다양한 지점에서 접근 가능한 다양한 경로 존재	비순차적인 입체적 접근 경로
수많은 분자적 상태의 노드	다양한 지점들이 개별적 중심을 구성

상호작용의 상대적 공간 - 하이퍼텍스트 공간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상호작용성이다. 하이퍼텍스트 내에서는 서로 다른 이용자가 동일한 정보습득을 하기 위해 선택한 정보와 경로가 다름에 따라 서로가 가지는 과정과 경험의 측면이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를 경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하이퍼텍스트라는 공간 내에서는 이용자들은 개인마다 고유한 경험을 가지며, 개인적 경험 혹은 기억에 의하여 공간을 재구성하고 해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개개인의 경험은 매순간마다 재정의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완결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

<표 4> 하이퍼텍스트의 상대적 공간

하이퍼텍스트	공간구조
상호텍스트성 → 상호작용성	개인마다 구별되는 경험에 의한 상대적 공간
접속을 통한 구조 성립	시간성이 부재된 비영속적 공간
항상 변화하는 구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비물질적 공간

리즘과 하이퍼텍스트는 전체성을 추구하는 구조주의의 절대적 공간을 부정하고 개체간의 상호 교환적 측면을 중시하는 상대적 개념으로의 전환과 더불어 고정된 사고에 대한 탈피 등 비슷한 공간적 개념들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 공간적 개념들은 현대의 건축 공간 특히, 도서관의 변화하는 공간구조를 설명하는데 있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11)노마드(nomad)는 유목민을, 노마디즘(nomadism)은 유목생활을 말한다. 유목적 사고는 현대의 역동적인 변화양태를 표현하며 새로운 현대어로써 자리하고 있다. 탈주를 꿈꾸는 유목민들은 경계의 확장과 다원의 사고를 통해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한다. 유동적 문화의 가치는 테크놀러지의 발달에 따라 디지털 문화를 대변하며 고정된 활동보다는 끊임 없는 흐름으로 구성된 활동으로 수많은 규모와 형태의 흐름이 공존한다. 최지운, 『후기구조주의 사유와 '해체주의 이후' 변화된 구조-개체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P.24~25, 2002

3. 변화하는 도서관

3.1. 지식의 생성과 저장

(1) 사회적 요구와 도서관의 발생

도서관의 역사를 고찰하면서 지식, 권력, 정보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그 사회와 직결되어 온 건축에서 공간구축 어휘의 이론적 배경과 근원을 찾는 일이다. 이 과정에서 건물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기능을 수용한다. 이는 건물의 다양한 특성들은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이 속한 사회의 제반 사회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도서관은 지식의 생성과 저장 방법에 따라서 그 공간적 성격이 비교적 명백하게 변화하고 특징 지워진 건물이다. 도서관은 본래 박물관이나 극장처럼 정보 분류 및 저장 공간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시설이 아니었다. 그러나 정보의 양적 증가로 공간은 질적인 변화가 필요하게 되어 점차 독자적인 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간에 전시되고 접근되는 정보를 위한 체계적인 분류와 저장의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2) 체계적인 분류와 저장 시스템

도서관에서 정보의 분류와 저장에 대한 체계적인 형태는 지식의 체계로 간주된다. 도서관의 분류는 공간의 의미와 형식을 규정하고 해석한 일종의 프로그램이었다.¹²⁾ 중세 이후 기존의 저장법이 정보의 양적 팽창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고, 저장된 정보와 접근의 과정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서지분류 시스템에서 분류된 목록에 따라 서가의 분류가 따르게 되는 공간구성이 출현하게 되고 이는 도서관 위계성립의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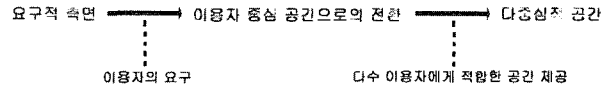
3.2. 이용자의 요구와 도서관

(1)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 이용자의 요구

정보시설 즉, 도서관이 수용하는 정보의 가치와 이용자의 요구에 관한 수많은 논의들은 도서관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정보의 양식과 접근 방법에 따라서 공간구조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인자임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네트워크에 따른 정보에 대한 접근 방법의 다양화와 정보의 형태가 점차 고정되지 않은 무형적 정보로 치환되고 있는 오늘날 미디어 정보는 정보에 대한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부정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하이퍼텍스트의 공간구조처럼 이용자의 다양한 접근방법과 유동적 성격을 지닌 정보의 끝없는 확장성은 정보의 가치적 성질을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이용자의 요구적 측면에 따라서 정보의 질이 결정되는 성격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수의 이용자에게 적합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도서관 건축의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12) 김우영, 정보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보시설의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p.76



<그림 4> 요구적 측면의 공간화

(2) 지식의 확장기(擴張機)

도서관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식의 재생산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다. 공공도서관의 발생 이후 대부분 개가식의 방식이었다. 오늘날 도서관에서는 필요한 책과 지식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한 공간적 배열이 중요한 설계방법론으로 대두되었다. 도서관은 열린 지식 속에서 자유롭게 떠돌아다니며 기대하지 않았던 조우를 경험하는 그런 '정신적 부유'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간은 이러한 자유로운 움직임을 조장하는 장치로서의 역할이 더욱 더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¹³⁾ '지식의 진정한 의미의 재생산은 인간이라는 사고 주체와 주체와의 만남과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다.' 라는 미셸 푸코의 근대적 의미의 인간상은 도서관이 가져야 할 '지식의 증폭을 위한 공간제공'이라는 역할을 뒷받침하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3.3. 변화된 공간개념

(1) 위계 - 위계적 체계에서 탈위계적 체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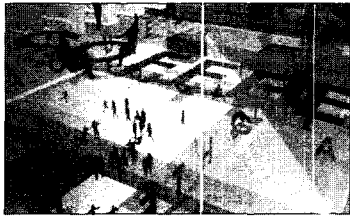
도서관이 위계적이고 선형적 질서를 가지게 된 것은 서적의 양적 증가에 따른 렉턴(Lectern)에서 스톨(Stall)로의 변화 때문이었다.¹⁴⁾ 이러한 도서관의 위계적인 체계의 모순은 라이프니츠와 마커스에 의해서 지적되었다. 라이프니츠¹⁵⁾는 책의 다차원성을 무시하고 사서에 의한 많은 관계들의 가능성에서 하나만을 선택하여 선형성에 의해 체계화 되는 모순을 지적하였고, 마커스는 그의 책 Building & Powers에서 '책이 자라나는 나무의 끝에 있다는 점을 주목하면, 그것은 공간에서 절대적 위

13)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사, 서울, 2003, pp.123~129

14) 렉턴은 책상과 책장의 혼합형으로 책이 기울어진 면에 놓이고 독자가 서서 혹은 앉아서 읽는 시스템이다. 책은 일반적으로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으며 렉턴 밑의 선반에 놓이기도 하였다. 스톨은 1598년 옥스퍼드 대학에 기증한 토마스 보드리의 기증도서를 위해 토마스 제임스가 설치한 것이 가장 초기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스톨에서는 책장의 용량이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책상의 기능은 약화되면서 수평화 된다. 의자는 별도로 설치되는 게 일반적이다. 김우영, 정보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보시설의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p.85

15) 라이프니츠는 사서이면서 철학자로서, 불펜뷔텔 도서관의 사서로 임명되면서 철학적 탐구에 기반을 둔 분류시스템을 시도하게 된다. 그는 주제별 분류와 저자별 분류를 동시에 취하는 노래의 분류를 참고로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콘라드 게스너의 시스템에 바탕을 둔 초기 23분류법에 의해 책들을 형식에 따라 세분화하고 고정 서가의 위치에 숫자를 표기함으로써 서가 리스트 목록표를 처음부터 만들었다. 그는 서적의 계속되는 증가가 지식을 파편화하고 학문의 평판을 훼손시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책을 대신하는 책인 백과사전을 완성하게 된다.

치를 가질 수 없다.' 라고 하였다. 노부야키 후르야(Nobuaki Furuya)와 히사코 스기우라(Hisako Sugiura)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계획안은 선형적 동선을 해체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5> Nobuaki Furuya와 Hisako Sugiura의 센다이 미디어테크 계획안 투시도

이 계획안을 통해 그들은 일방향적이고 순차적인 체계를 갖는 선형적 동선을 우발적 임의성으로 대체하고, 정보가 가지는 폭발적 가능성을 통해 지식을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공간체계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하였다.

(2) 중심 - 중심의 해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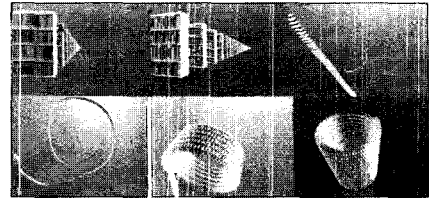
근대 도서관의 중심성은 방대한 서고로 둘러싸인 지식의 표상으로서 상징적 의미와 열람공간의 배치를 통한 지식의 상징적인 습득을 의미하였으나 근대 이후 도서관의 중심공간은 점차 다른 기능으로 전환되거나 사라지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중심공간의 해체는 사회적인 의미와 공간적인 의미 두 가지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사회적 의미는 시설과 정보가 중심이 아니라 이용자가 중심이 됨을 뜻하고 이용자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 중심의 위치가 바뀌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중심은 물질적인 표상으로서 중심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성에 따른 중심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간적 의미는 정적인 공간에서 동적인 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다양한 중심점이 존재하여 다중심적인 성격을 가짐을 뜻한다. 여기에서 중심은 네트워크의 노드로서의 중심을 의미한다.

<표 5> 중심공간의 해체와 대표 사례 도서관

중심공간의 해체 방법		사 례
도시적 광장	우발적 만남과 상호교류	델프트 공대 도서관 Kansai-kan 도서관 (도미니크 페로)
외부로의 확장	도시적 공공공간	윈스터시 도서관 벤쿠버 도서관 캘리포니아대학 과학도서관
네트워크 노드로서의 작용	중심공간 → 중심점	센다이 미디어테크 (도요 이토) 파리대학 도서관 (렘 콜라스)
중심의 제거	중심 없음	피닉스 중앙도서관 브리티시 도서관 파리대학 도서관 (도요 이토)

(3) 저장 - 제자리 없는 저장체계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과 전자적인 정보의 등장은 정보의 분류와 배치에 새로운 방식을 가져왔다. 정보는 상호연관성을 가지는 고리로 연결되며 유동적인 흐름을 지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고정된 위계가 해체되고 새로운 기준을 통해 수많은 접근의 방법이 가능하게 되었다. 과거 일방향적이고 순차적인 시각적 암시나 표식에 의해 '제자리'¹⁶⁾에 저장되었던 정보들은 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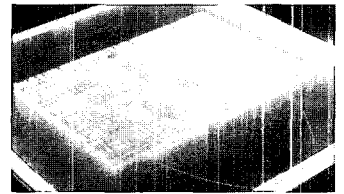
<그림 6> MVRDV의 Brabant 공공도서관 계획안 개념

적인 네트워크의 발달로 '제자리'라는 말의 의미를 희석시켰다.

MVRDV의 네덜란드 Brabant 지방을 위한 공공도서관 계획안은 진보적인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미래 도서관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그들은 이 계획안이 CD나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의 저장과 막대한 성장의 잠재력이 어떠한 정보도 어느 곳에서나 취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⁷⁾

(4) 경계 - 관념적 경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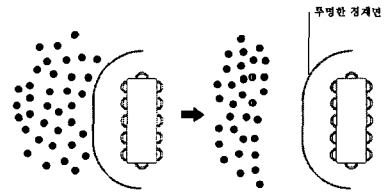
상대적 내·외부 공간은 공간의 연결 관계에 따른 인간의 시각에 의해서 형성된다. 경계의 관념적 시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네트워크 등이 갖는 현대 정보의 형태 변화에 따른 정보의 유동성, 접근 경로의 다양화 등 비 가시적인 의미로서의 시각이다. 두 번째는 경계면의 투명함으로 인해 경계가 허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투명함으로 인해 인



<그림 7> 도요 이토의 파리대학도서관 계획안 모형

이 갖는 현대 정보의 형태

변화에 따른 정보의 유동성, 접근 경로의 다양화 등 비 가시적인 의미로서의 시각이다. 두 번째는 경계면의 투명함으로 인해 경계가 허물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투명함으로 인해 인



<그림 8> 인식적 경계설정 다이어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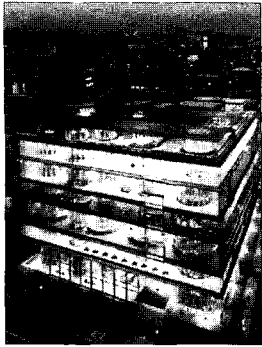
식적인 경계가 설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래의 다이어그램은 투명한 경계면의 설정으로 인해 인식적 경계 설정이 생성됨을 나타낸 것이다. 인식적 경계가 설정됨으로 인해 오히려 물리적인 경계의 거리가 형성되는 것이다.

(5) 상징 - 비물질적 외피

상징을 위한 외피의 표현은 정보의 흐름을 통한 유동적 성격이나 비순차적인 접근체계를 가지는 개념의 표현을 외피의 투명성, 외피의 변화 등을 통해 나타낸다. 도요 이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는 파이프런으로 명명된 튜브와 개방적인 바닥 슬라브에 의해 자유로운 입면을 설정하고 투명한 유리면을 통해 외부

16)'제자리'는 기존의 서지분류에 따라 정보가 도서관 내 정해진 위치에 놓여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17)mvrdrv, el croquis, 111, Spain, 2002, p.206



<그림 9> 비물질적 외피를 통한 정보의 상징적 표현 (센다이 미디어테크-도요 이토)

와의 정보소통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외부로의 표출은 투명한 외피가 담당하는 비구축적 속성의 결과이며, 기념비적 상징화가 아닌 정보와의 소통에 경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또한, 정보의 의미전달, 외피의 변형을 통한 문화적 변화의 흐름을 가시화하고 있다. 경계면의 비물질적인 속성은 정보의 경계에 대한 동시성의 표현이며, 정보의 상호작용성의 표현을 나타낸다. 따라서 상징과 개념의 물질적 표현과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 될 수 있다.

<표 6> 개념의 물질적 표현과 의미

은유를 통한 물질적 표현	
경계면의 비물질적 속성 (유기체적 감응, 외피의 유동적 변형, 비구축적 경량성, 투명한 외피)	⇒ 정보의 경계에 대한 동시성, 상호작용성, 접근에 대한 의미전달

4. 변화된 개념 - 변화하는 도서관

4.1. 비가시적 중심공간과 가시적 중심점

도서관 공간의 탈중심화, 비위계적 성질은 리즘의 비중심이나 다중심적 성격 그리고 하이퍼텍스트의 이용자 중심의 상호작용적 특징과 연관된다. 리즘의 비중심이나 다중심적 성격은, 리즘적 사고의 복합적이고 열린 공간이 파편화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차이를 가지는 부재들이 각 중심을 가지지만 그 부재들을 엮어주는 통일된 일차적 중심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중심의 제거는 비위계적인 공간으로 변화하여 결국 공간은 자유로운 평면과 단면을 형성하고, 층간의 상하관계가 모호해지며, 내부와 외부의 공간들이 섞이는 특징을 나타낸다. 하이퍼텍스트의 상호작용적 특징은 다중심적이고 중심공간에서 중심점으로 변화된 도서관의 공간적 특징을 설명해준다. 하이퍼텍스트의 공간은 이용자 중심의 공간이며, 특정한 맥락이 없는 시공간의 파괴로 특징 지워지는 공간이다. 도요 이토의 센다이 미디어테크가 가지는 개별적 노드들은 이러한 하이퍼텍스트의 개별적 중심, 시간성을 가지는 비영속성 등을 표출하고 있다. 층의 개념이 사라진 가구, 스테이지, 열람대 등은 수직적 요소인 튜브와 함께 각 층이 개별적으로 작용하는 연속적인 정보의 매끄러운 판으로 간주되고 개별적 노드들은 비선형적이며 각기 중심을 가지는 공간 성격을 내포한다.

<표 7> 도서관 중심공간 변화와 리즘·하이퍼텍스트의 관계

도서관의 중심과 위계 변화	리즘	하이퍼텍스트
중심공간의 성격·기능 변화	끊임없는 이동에 의한 중심의 제거	상호작용에 의한 개별적 중심화
비선형적인 비위계적 공간	복합적이고 열린 공간의 파편화	비순차적이고 복합적으로 얽힌 구조
접근 방식의 다양화	열린 구조에 의한 비정형적인 접근	접속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구조 시간성 부재에 따른 비영속적 공간구조

4.2. 유연성을 위한 배회하는 공간

정보저장의 혁명적 변화는 정보의 무한한 양적 확장에도 그 저장체계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는 정보가 만나는 점점에 따라서 새로운 지식 생산의 가능성을 내포하며 변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연한 사고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의 표현은 결국 저장 방법에 있어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정보와 이용자가 접촉할 수 있도록 정보의 창고에서 배회하는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공간 개념은 리즘의 운동과 탈주를 통한 흐름의 공간 개념에서 찾을 수 있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운동을 통한 생성과 그 생성과정에 대한 사유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다양체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다. 이는 도서관 저장 공간의 배회를 통해 정보와 정보, 정보와 이용자가 만나는 점점에서 새로운 지식이 형성되는 정보 습득과 지식의 재생산 과정과 유사하다.

하이퍼텍스트의 얽힌 구조는 유연한 정보와의 접촉 가능성과 새로운 정보 읽기 개념에 부합된다. 네트워크란 텍스트가 흐르도록 만든 선의 개념이므로 흘러야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다.18) 계속 연결된 하이퍼링크를 통해 처음 의도하는 달리 새로운 정보의 세계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하이퍼텍스트 공간이다. 이는 무한히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며 흐름의 공간을 형성한다.

<표 8> 저장체계 변화와 리즘·하이퍼텍스트와의 관계

도서관 저장체계 변화	리즘	하이퍼텍스트
무한 확장이 가능한 저장체계 배회를 통한 유연적 정보접속	↓ 끊임없는 이동 - 유목 형태변이 - 시뮬라크르	하이퍼링크를 통한 정보의 영역 확장 영역 확장에 따른 유연적 정보접속
↓	↓	↓
정보와 이용자의 교류 지식의 재생산 과정	유동적 흐름 복제를 생산(다양체적 구성)	유동적 흐름 끊임없이 재생산되는 지식

4.3. 유동적 정보와 공간의 확장

도서관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발달, 하이퍼텍스트적 구성 논리, 그에 따른 다양한 중심들이 가지는 경계의 확장, 그리고 정보의 유동적 성질에 따라서 일정한 영역을 가지는 공간을 변화

18)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워크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1999, p.203

시키고 있다. 이는 하나의 연속된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외부로 확장하고, 내·외부간의 정보소통과 정보의 경계에 대한 동시성을 나타내는 것이며, 상호작용성, 접근의 의미에 대한 은유적 표현으로 작용한다. 공간의 확장 개념은 정보 성격변화에 따른 관념적인 시각과 은유를 통한 상징적 외피의 현상적 시각이라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전자는 새로운 것의 창출이라는 리즘의 이질성의 원리에서 찾을 수 있다.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접속 가능성을 허용한다는 의미인 이질성은 다양한 종류의 이질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것, 새로운 이질성을 창출한다. 이는 도서관에서 이질적인 분야의 정보와 지식이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되는 의미와 같다.

후자인 은유를 통한 현상적 시각은 리즘적 사유의 탈영토화에 관한 들뢰즈와 가타리의 ‘어떤 것도 결코 단독으로 탈영토화 되지는 못하며, 적어도 두 항(項)이 항상 존재한다.’¹⁹⁾는 정리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변화하는 도서관에서 영역과 영역 사이의 모호한 통합적 공간이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 끊임없이 그 성질과 기능을 변화하며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끊임없이 확장하고 산포되는 리즘의 원리는 정보가 외부로 확장되어 외부를 사유하고, 외부를 통해 사유하는 내재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도서관이 외부와의 소통을 의미하는 비물질적인 투명한 외피로 표현되는 것과 의미를 같이할 수 있다.

TCP/IP로 이루어진 하이퍼텍스트 세계의 주소체계는 물질적 상태에서 벗어나 분자적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물질성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하이퍼텍스트 공간은 ‘탈물질화된 공간(dematerialized space)’이며 비물질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흐름을 통제하는 특정의 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 열려있으며 접속과 이탈이 가능하다. 또한 접속의 수나 이탈의 수 또한 알 수가 없다는 점에서 하이퍼텍스트는 탈경계적 성격을 가진다.

<표 9> 탈경계·비물질적 성격과 리즘·하이퍼텍스트의 관계

도서관의 탈경계와 비물질성	리 즘	하이퍼텍스트
다양한 중심들로 인한 경계의 확장	끊임없이 확장하고 산포되는 개별적 중심	수많은 분자적 상태의 노드로 구성
영역간 경계의 상호 중첩	이질성의 원리에 의한 새로운 것의 창출	접속 방법에 따른 새로운 지식의 발생
외피의 투명성, 유기체적 감응, 유동적 변형	외부와의 접속을 통한 내재성 추구	흐름을 통제하는 특정한 기구의 부재에 따른 확장

4.4. 교환적 정보 흐름과 노드의 역할

정보가 상호연관성을 가지게 된 것은 네트워크 시스템의 발달 덕분이다. 물리적인 근접상태가 아닌 네트워크상의 근접상태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게 되고, 일방적이고 순차적인 접근이 아닌 상호교환적인, 그리고 입체적이고 다방향적 특성을

갖는 접근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하이퍼텍스트의 구조가 가지는 비순차적이고 교환적 정보의 흐름은 현대 도서관의 네트워크 구조와 거의 동일하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리즘적 사유 중 수평적 복수성을 지닌 경계 흐리기, 경계의 확장, 다원성에 따른 탈주-유목적 사고는 이러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성하고 유동적 정보의 흐름을 수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사유로 이해될 수 있다.

새로운 대지를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유목적 사유는 그 유동적 특성 상 경계를 가지지 않는다. 형태나 전달 방법, 그리고 접하는 과정에 따라서 무한대로 변화하는 현대의 정보 또한 그 성격의 유동적 성질로 인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다 영역으로 넘나들며 정보에서 지식으로 다시 지식의 재생산과정으로 진화한다. 리즘의 중심이 제거된 비위계적 공간은 비중심적 그물화된 네트워크로, 새로운 도서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리즘의 각 뿌리가 가지는 다양한 접속의 체계는 도서관 네트워크의 노드와 닮아 있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기본 체계로서 작용하는 구조적 특징을 공유한다.

<표 10> 도서관의 네트워크와 리즘·하이퍼텍스트의 관계

도서관의 네트워크	리 즘	하이퍼텍스트
개별적 중심이 형성되는 다중심적 공간	각각의 뿌리가 다양한 집결지를 가지는 접속 체계	다양한 지점에서 동일한 정보로의 접근이 가능한 다양한 경로 존재
다방향적·비선형적 동선 동선의 입체적 중첩	다양한 방향으로 뻗어가는 중심점 없는 파생	다방향적·비순차적 입체 체계

5. 결론

현대 디지털 문화의 발달에 힘입어 정보의 형태가 무형의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이 시대에 Andre Malraux의 ‘벽이 없는 미술관’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견하는 책의 종말론은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분명 미술관이나 박물관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그 수가 예전보다 훨씬 많아지는 상황이다. 도서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의 종말론에 의해 그 존재의 무의미함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도서관과 같이 사회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건물들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그 기능과 의미를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존재의 의의를 다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라서 변모한 도서관의 공간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함이었다. 변화된 공간개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근대 이후 전체성의 개념을 가졌던 구조주의 개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탈구조주의, 해체주의, 후기구조주의의 개념 등을 고찰하였으며, Fold 건축, 유동성 비선형 건축 등 현대 건축이론의 다양한 흐름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현대 건축이론의 흐름에 리즘

19)이진경, 노마디즘 I, 1판, 휴머니스트, 서울, 2002, p.527

적 사유와 하이퍼텍스트 사유가 그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현대 건축이론의 배경이 될 수 있는 리즘적 사유의 특징으로는 경계를 부정하는 공간의 확장, 무한 생성의 다양체적 구성 등이 있었으며, 이를 통한 공간적 특징은 탈중심, 탈구조, 탈물질, 탈경계, 개별적 공간, 경계 지움, 무한 확장의 흐름의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의미에서 하이퍼텍스트의 특징은 비선형적 흐름과 경계 없음, 상호작용의 상대적 공간 등이 있었으며, 이의 공간적 특징은 경계 확장, 중심의 부재, 비순차적 접근, 개별적 중심, 상대적 공간, 비물질적 공간 등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러한 리즘적 사유와 하이퍼텍스트의 공간적 특징은 변화하는 도서관의 공간적 특징과 많은 부분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물은 사회의 변화를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매체이다. 사회 변화의 흐름을 알면 그 사회가 요구하는 것 또한 추측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변화하는 도서관의 공간적 특징은 현 사회 변화의 흐름을 최대한 수용하는 도서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해야 하는지를 조금이나마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둘 수 있다. 또한 공간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제시되었던 리즘적 사유와 하이퍼텍스트가 현대 건축의 이론적·사상적 배경이 될 수 있으며, 도서관 공간변화의 흐름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그 가치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의 도서관 건축은 과거에도 그러하였듯이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감지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가치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건축적 해석을 통한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라도삼, 비트의 문명 네트의 사회, 커뮤니케이션북스, 서울, 1999
2. 배석환, 인터넷, 하이퍼텍스트 그리고 책의 종말, 책세상, 서울, 2000
3. 이진경, 노마디즘 I, 1판, 휴머니스트, 서울, 2002
4. 최윤경, 사회와 건축공간, 시공사, 서울, 2003
5. Deleuze Gilles & Guattari Felix, 천개의 고원, 1판, 새물결, 서울, 2001
6. Markus Thomas A., Buildings & Power, Routledge, 1993
7. Mitchell William J., 비트의 도시, 김영사, 서울, 1999
8. Harris Michael H., History of Libraries in the Western World, Haworth Press, 1995
9. Vattimo Gianni, 미디어사회와 투명성, 한울아카데미, 서울, 1997
10. 강훈, 디지털 건축디자인으로서 '주름(Fold)'에 관한 연구-질 들뢰즈의 '주름(fold)'사유와 피터 아이젠만의 '접기(folding)'기법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0권 11호, 2004
11. 김우영, 정보선택론의 변화를 통해 본 사회정보시설의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3
12. 김우영, 정보양식의 변화에 따른 사회정보시설의 공간체계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2002
13. 최지운, 후기구조주의 사유와 '해체주의 이후' 변화된 구조-객체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국민대 석사논문, 2002

<접수 : 2006. 10. 30>